

主流學者의 참회록

서강대학교 최운열 교수

성장을 위한 희생
-의식주가 급선무



Quality of life에 관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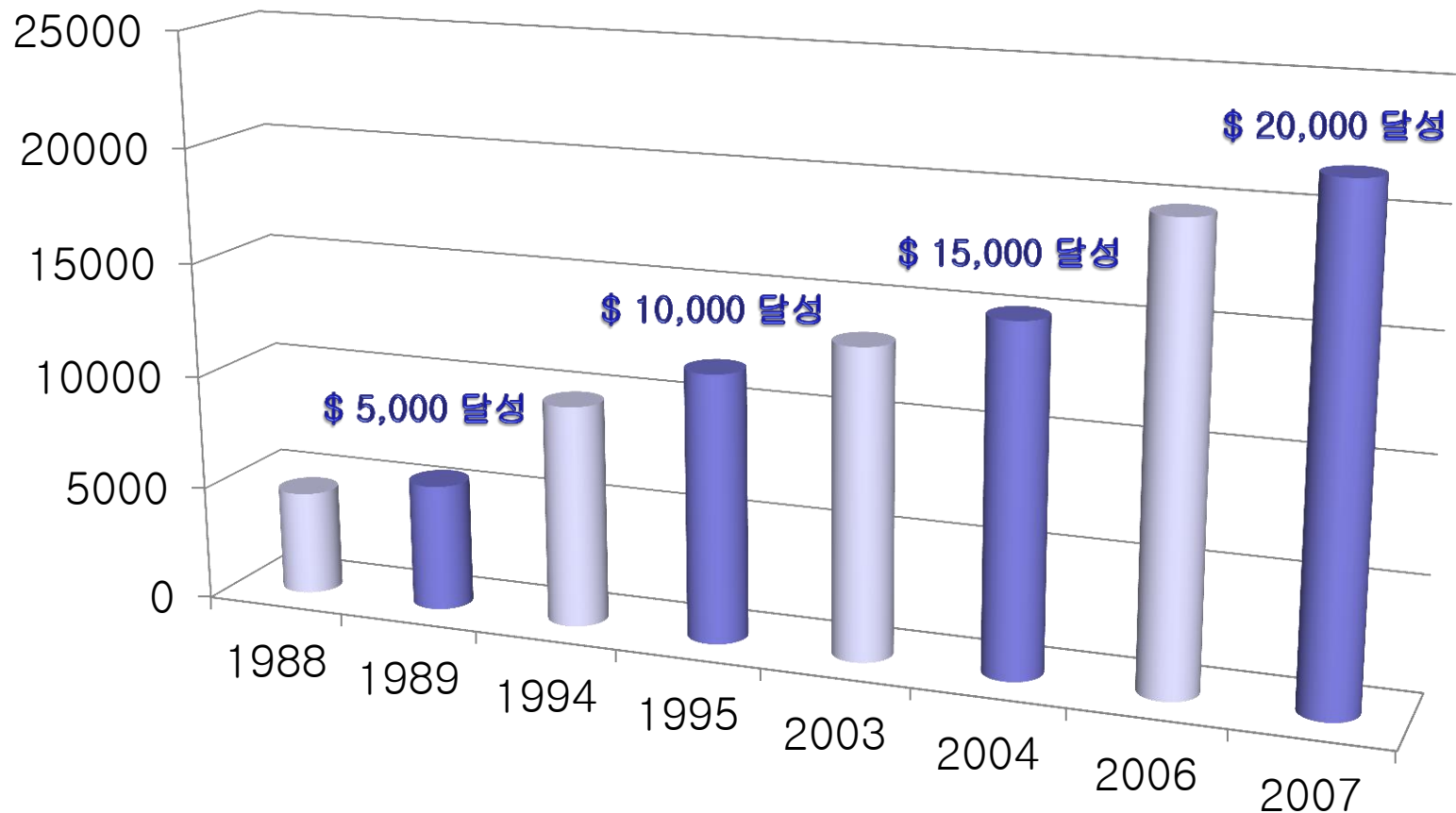
- Easterlin Paradox : “ 경제성장과 행복 수준은 반드시 정비례 하지 않는다”

=>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로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을 연구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음을 증명

- ❖ 네델란드 에라무스대학의 행복학 교수 빈로벤에 의하면 소득이 \$20,000 이하인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증가하지만, 소득이 \$20,000 을 넘어가면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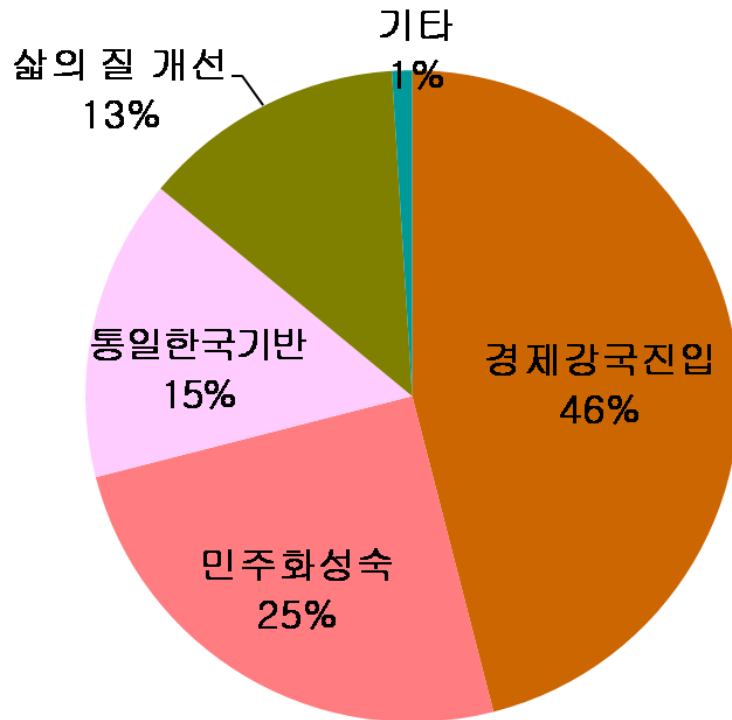
- 1인당 국민소득 \$20,000 달성까지 국민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, 그 이후에는 Quality of life에 관심

1인당 GDP (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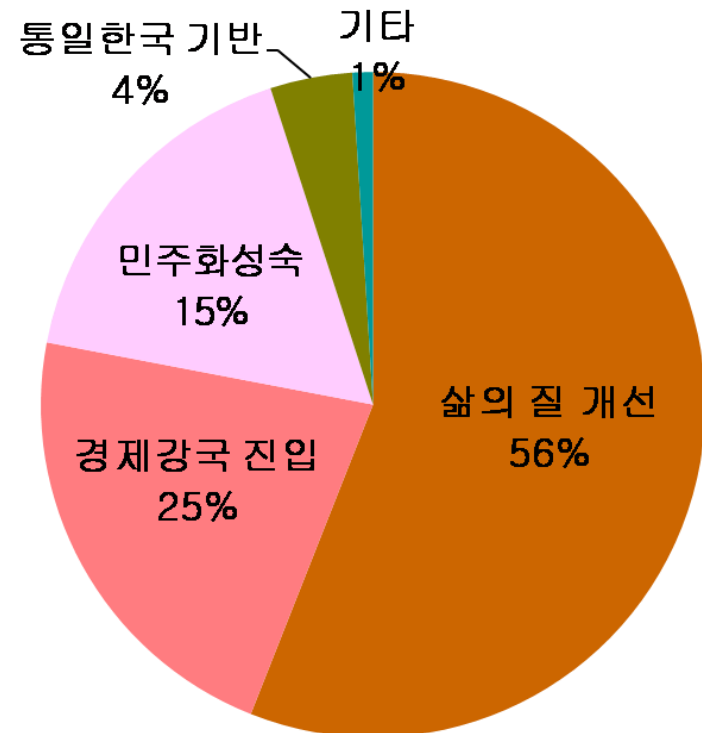
[여론조사]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가목표는?

1997년



*1997년 4월, 한국소비자리서치 3,025명 대상 조사

2011년



*2011년, 엠브레인 1,200명 대상 조사

- 최근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로 등장한 이유
 - ✓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와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
 - ✓ 능력에 관계 없는 2, 3세로의 경영권 이전논란
 - ✓ 낙수효과(trickle down effect) 논란

✓ 낙수효과(trickle down effect) 논란

	국민총소득증가율	가계소득증가율	기업소득증가율
1990 – 1999	5.9%	5.7%	6.0%
2000 – 2009	3.5%	2.4%	7.5%
2008 – 2012	2.1%	1.4%	5.1%

	가계소득비중	기업소득비중	정부소득비중
1990년대	76.5	16.1	12.4
2000년	68.7	16.5	14.8
2012년	62.3	23.3	14.4

- 국민이 주인답게 사는 경제
-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
- 공정경쟁(일감 몰아주기, 부당 단가인하)
- 동일노동 동일임금(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아야)
 - 노조민주화
- 공평 과세(지하경제, 조세피난지역)
- 대기업 vs 중소기업
- 기업의 지배구조 : Shareholders vs Stakeholder Capitalism



한국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민주화는 필수

- Joseph E. Stiglitz (The Price of Inequality)

“불평등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,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결국 사회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”

- James Hackman

“불평등해소가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키운다.”



한국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민주화는 필수

- 장하준, 캠브리지대 교수

“고용안정, 복지확대 없이 성장없다”

- 프란치스코 교황

“불평등에 무감각한 사회에는 결코 평화와 행복이 오지 않는다.”

- 자본주의 체제 파수꾼 IMF,

“재분배가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론은 근거가 없다. 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더 지속하게 한다.”

- 삼성경제연구소

“한국은 OECD 2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며, 높은 갈등 수준은 1인당 GDP의 27%를 지불한다.”